

전남 해양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더 늘었다

2014년 21건→2018년 53건
매년 증가...어선 사고 최대
여름 휴가철 예방 대책 시급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지역 해양 선박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섬 지역을 찾는 여행객과 낚시객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양선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일 해양안전심판원이 작성한 ‘2018년 해양사고 현황 보고서’의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목포항·여수항·광양항 등 전남 해상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2014년 21건, 2015년 25건, 2016년 37건, 2017년 58건, 2018년 53건 등 194건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통계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 사고 등을 조사·심판한 해양사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해경 등이 접수한 사고 현황

과는 차이가 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사고가 2014년 8건, 2015년 6건, 2016년 15건, 2017년 27건, 2018년 28건 등 84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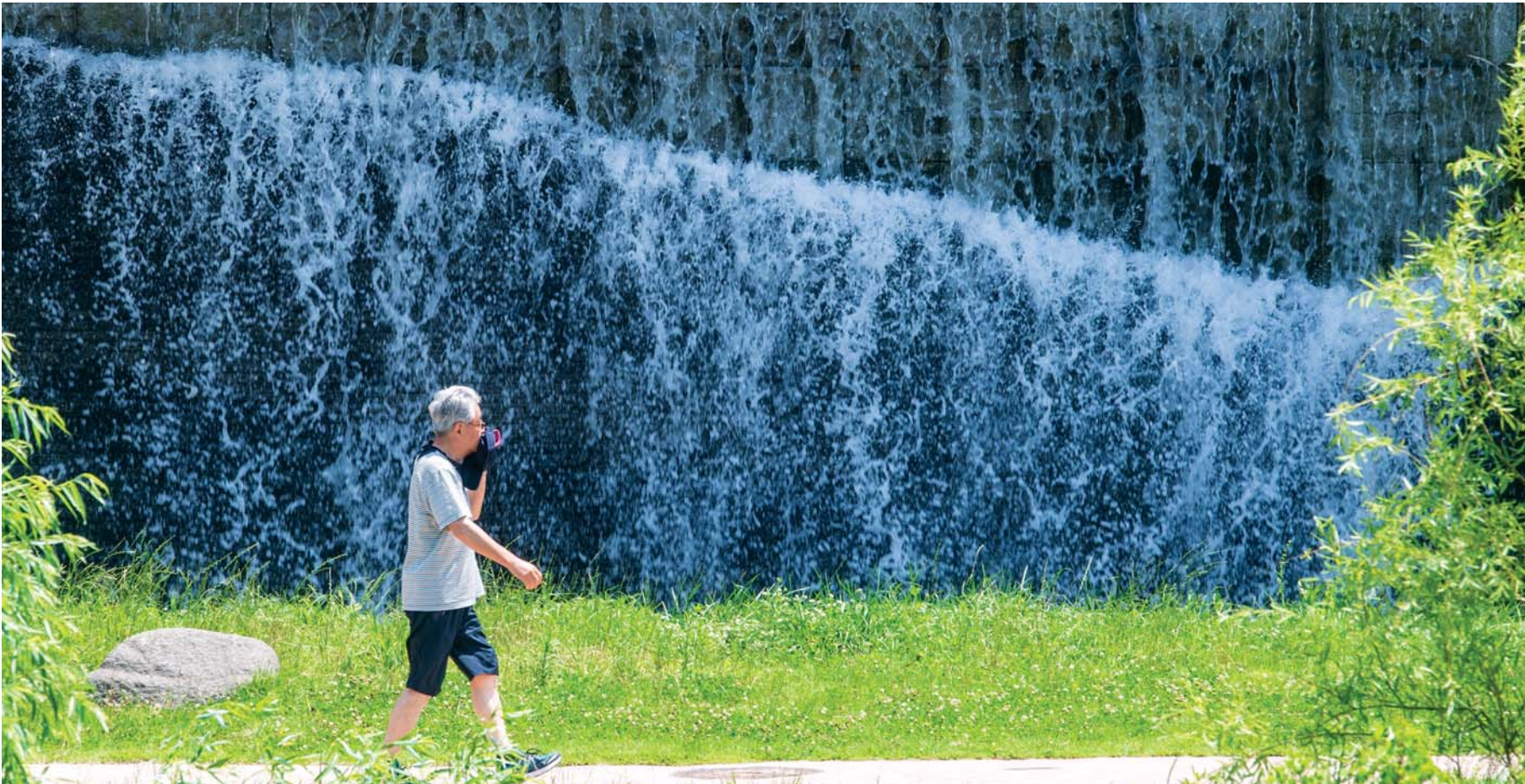
같은 기간 상선(여객선·유조선·화물선 등) 사고는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15건, 2017년 20건, 2018년 16건 등 74건(38.1%)이었다.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전남어선은 2017년 기준 2만6939척으로 바다와 인접한 14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상선은 1279척이다.

전남지역은 등록된 선박이 많은 만큼 해양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께에는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1t급 어선 2척이 조업 중 충돌해 선장 A(73)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40분께에는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던 예인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또 1월 11일 새벽 5시께엔 여수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 경남 통영 해상에서 침몰해 낚시객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들 사고는 다른 선박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충돌했거나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게 해양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도심 열기 식히는 인공폭포 시원한 물줄기 /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전변의 인공폭포가 시원스레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섬에서 나물 채취 안돼요”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단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 음달까지 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 행 위 사전예방 활동·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 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비금·도초·우이도·흑산도·홍도 등)에서 빈번 히 발생하는 산나물 채취 등 야생생물

포획, 출입금지장소 위반, 정해진 장소 의 취사·야영·음주·흡연행위 등이다.

서부사무소는 열화상센서·고성능 스 퍼커 등을 탑재한 무인기(드론) 등 최 신 장비를 도입해 산 정상부 음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 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 에서 취사·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 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급식중단 학교 143개교로 줄어

비정규직 파업 마지막 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마 지막 날인 5일에는 광주·전남에서 143개 학 교가 급식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5일 광주는 253개 공립학교 중 35곳, 전남은 공·사립학교 852곳 중 127곳에서 급식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29개 학교에서 대체급식과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6개 학교는 기말시험을 치르거나 학사일정을 조정하

기로 했다.

전남은 50개 학교가 대체급식과 도시락 을 지참토록 했으며, 34곳은 단축수업, 43 곳은 기말고사 등을 치르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급식중단 학교는 파업 첫 날인 3일 332곳에 이르렀으며, 4일에는 191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26개 초등 돌봄교실이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5일에도 운영하지 않기로 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불편 도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녘 19:51
달뜨기 07:45
달지기 22:05

당분간 무더위

구름 많이 끼고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구름많음	21/32	보성	구름많음	19/29
목포	구름많음	21/29	순천	구름많음	21/31
여수	구름많음	22/28	영광	구름많음	19/30
나주	구름많음	19/32	진도	구름많음	19/29
완도	구름많음	20/29	전주	맑음	19/31
구례	구름많음	19/32	군산	구름많음	20/30
강진	구름많음	20/30	남원	구름많음	19/31
해남	구름많음	19/30	흑산도	구름많음	19/27
장성	구름많음	18/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1.5

◇물때

	간조	만조
	09:17 21:19	04:08 16:07
여수	04:43 16:49	10:47 23:26

◇주간 날씨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21/32	21/30	22/30	22/30	22/27	22/28	22/28

화순 너릿재 터널 ‘모세의 기적’ SNS에서 알린다

소방청 대표 미담 사례 뽑혀

광주와 화순을 잇는 신너릿재터널에 서 운전자들이 출동하는 구급차에 길을 터준 일명 ‘너릿재 터널 모세의 기적’ 사 례가 소방청 대표 미담 사례로 뽑혔다.

소방청은 “높은 안전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한 국민의 미담사례를 유튜브 등 소 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 다”고 4일 밝혔다.

조선희 소방청 대변인은 이날 첫 번째 미담사례로 광주·화순간 신너릿재 터널 에서 일어난 ‘모세의 기적’을 그래픽 동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사용할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방 면 신너릿재 터널 안에서 A(28)씨가 몰 던 승용차가 B(62)씨의 1t 트럭을 뒤에 서 들이받으며 3중 추돌이 일어나 3명이 다쳤다. 구조 차량과 구급 차량이 긴급 출동했으나 터널 안 교통이 정체되며 시 간이 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운전자들은 차량을 도로 양 옆으로 옮기며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 록 길을 터줬고, 부상자들도 무사히 구조 될 수 있었다.

/김용희 기자 kimyh@

강제징용 피해자·시민단체, 日제품 불매운동 검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강제징용피해자 지원단체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 해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이 의견 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대응 방

침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국민 서명, 성 명서 발표 등이다.

이중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대표적 대 응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근로정 신대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 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펼쳐왔지만 대 상을 전체 일본 제품으로 확대해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수 안치환

가수 김수련

박광신 아나운서

미스트롯 송가인

친구야 벌교가자!!

한반도 평화 · 번영 · 통일을 염원하는 콘서트

“박기동 시인의”

부용산음악회

출연진 | 가 수 | 안치환, 송가인(미스트롯), 김수련
| 바리톤 | 유환삼 | 소프라노 | 정은선, 김성춘
채동선실내악단 · 보성채동선합창단

진행 박광신 아나운서

2019. 7. 10(수) 오후 6시 30분

벌교읍사무소 광장 주최/주관 : 벌교읍민회

후원 : 벌교농업협동조합, 벌교신용협동조합, 벌교새마을금고, 보성축협벌교지점, 고흥군수협보성지점, 벌교이장협의회, 벌교봉사단체협의회, 벌교상공인연합회, 벌교의용소방대, 벌교광고기획, 영일수산